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5〉

潙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⑤

聞聲見色 盖是尋常
문성견색 개시심상
遇境逢緣 應用不關
차변나변 응용불궐
如斯行止 實不枉被法服
여사행지 실불왕피법복
亦乃報恩四恩 拔濟三有
역내수보사은 발제삼유
生生 若能不退 佛踏 決定可期
생생 약능불퇴 불계 결정가기
往來 三界之賓 出沒 爲他作則
왕래 삼계지빈 출몰 위타작칙
此之一學 最妙最玄 但辦肯心 必不相賺
차지일학 최묘최현 단판긍심 필부상잠

듣는 경계 보는 경계에 다 평상심으로 대해 흔들리지 않고
이 경계 저 경계에 오는대로 응하되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 것이니
이와같이 망념없이 행하면 참으로
그릇되지 않게 법복을 입는 것이니라
또한 이에 네가지 은혜를 갚고 삼계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할 것이며
세세생생에 물러나지 아니하면 결정코 성불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가고 옴에 삼계가 반기는 손님이 되고 나고 사라짐에 다른 이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가고 옴에 삼계가 반기는 손님이 되고 나고 사라짐에 다른이 본보기가 되라"

이 한가지 배움이야말로 가장 묘하고 가장 깊으니 단지 즐거운 마음을 지녀라. 반드시 그대를 속이지 않으리라.

若有中流之士 未能頓超
약유중류지사 미능돈초
且於教法 留心 溫尋貝葉
차어교법 유심 온심패엽
尋搜義理 傳唱歌揚 接引後來 報佛恩德
정수의리 전창부양 접인후래 보불은덕
時光亦不虛棄 必須以此 扶持
시광역불허기 필수이차 부지
住止威儀 便是僧中法器
주지위의 변시승중법기

만일 중근기의 학인이 있어 몰록 (번뇌망상을) 뛰어 넘지 못할진대는
또한 교법에 마음을 두어 경전을 거듭 읽게 하되
든자를 넘어 그 참뜻을 잘 살피게 하고 외어서 널리 펼치게 하여 후학들을 접인해 부처님의 (설법)은덕을 갚도록 할지어다.
(그렇게하면) 세월을 헛되이 버린게 아니니 반드시 이런 식으로 불법을 받들어 지니면
행주좌와의 법도·위의가 곧 스님중에 스님다운 법기일 것이다.

豈不見 倚松之葛 上聳千尋
기불견 기송지갈 상용천심
附託勝因 方能廣益
부탁승인 방능광익

緣修齋戒 莫謂蹔强
간수재계 막만휴유
世世生生 殊妙因果
세세생생 수묘인과
不可等閑過日 兀兀度時
불가등한과일 올올도시
可惜光陰 不求升進
가석광음 불구승진
徒消十方信施 亦乃孤負四恩
도소시방신시 역내고부사은
積累轉深 心塵易壓 魔途成常 人所輕欺
적루전심 심진이응 촉도성체 인소경기

어찌 보지 못하는가. 소나무를 감고 오르는 칡은 위로 천길을 솟나니
수승한 설법인연에 의탁하면 바야흐로 널리 이익이 될 것이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계율을 닦아서 (부처님이 세밀히 일러주신 법도가) 이즈러지지 않게 할 지어다.
세세생생의 뛰어나고 오묘한 인과이니 (삭발염의하고 불제자 된것이 그러하다는 뜻)
헛되이 날을 보내고 올올이 (자리틀고 앉아 꼼짝 안하며) 시간 보내지 말라
가히 세월이 아깝거늘 마음 닦아 과위에 오르려 하지 않고
한갓 시방의 신심어린 시주물이나 소비하며 이에 또한 네가지 은혜만 신세 지겠는가
세월이 갈수록 쌓이고 깊어져 마음에 티끌만 꽉 들어차게 되며 와 닿는 경계마다 걸려 드는지라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바 로다.

古云 彼既丈夫 我亦爾 不應自輕而退屈
고운 피기장부 아역이 불응자경이퇴굴
若不如此 徒在緇門 往再一生 殊無所益
약불여차 도재치문 임염일생 수무소익
伏望 興決烈之志 開特達之懷
복망 흥결렬지지 개특달지회
擧措 看他上流 莫覺遙於霄壤
거조 간타상류 막천수어용비

옛사람이 이르되, 「저(부처·조사)가 이미 대장부라, 나 또한 그러하니 마땅히 스스로를 업수이 여겨 물러서서는 안된다」 하였으니
만약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한낮 머리 깎고 먹물 옷 걸친 채로 일생을 그럭저럭 보내는 것이라 아무 이익이 될게 없다.제발 바라노니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통달하리라는 마음을 내되
수행 길에 나서서는 저 상근기를 불자언정 제멋대로 용렬한 부류들을 따르지 말지어다.

今生 便須決斷 想料 不由別人
금생 변수결단 상료 불유별인
息意忘緣 不與諸魔作對
식의망연 불여제진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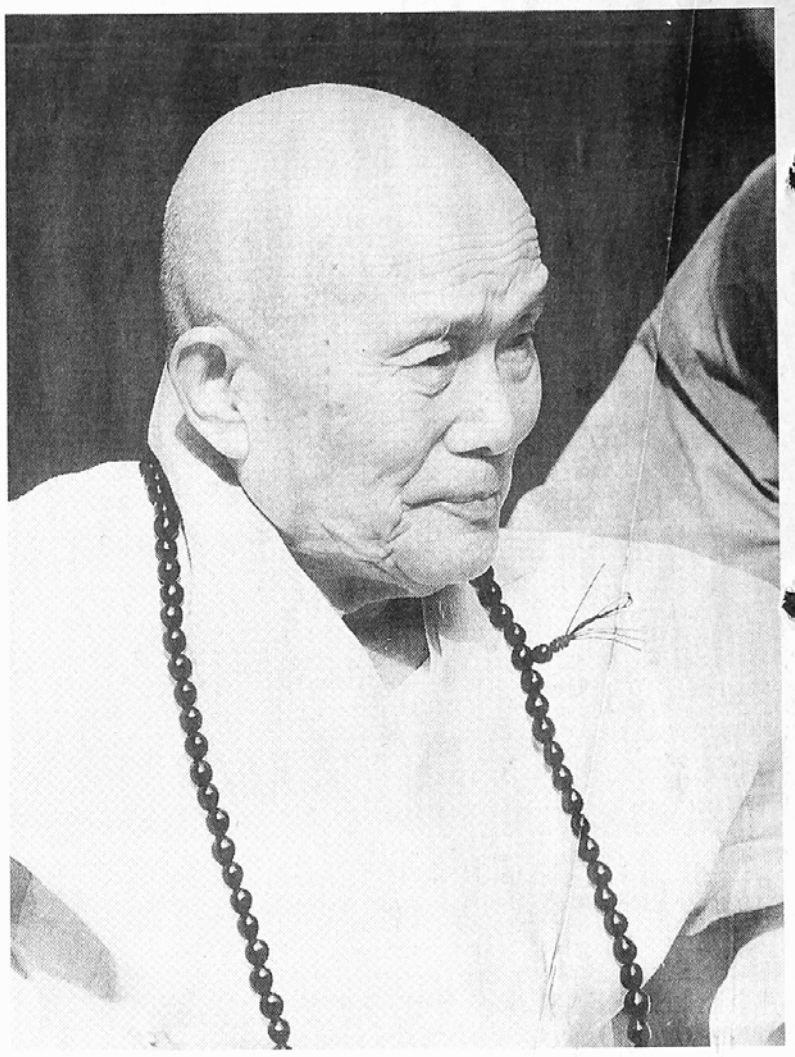
금생에 모름지기 결단하라. 생각컨대 (도란) 별난 사람을 말미암지 않는다.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 쉬고 경계조차 잊어 번뇌망상을 일일이 상대하지 말라.

龍眼

★ 지상법석

"생로병사 극복할 부처님가르침 믿고 실천하면 항상 광명

운경스님 〈봉선사 주지〉



약력
- 1905. 10. 15 生
- 1925년 태오스님 은사로 득도
- 자재암, 홍룡사 주지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부처님의 출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부처님의 삶을 닮은 새로운 출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어느 시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고 세월과 함께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인지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종교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다가 영원한 자유를 얻기위해 출가란 일상의 규범을 벗어난 강한 의지의 삶을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생의 삶이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란 고통 많은 중생계에 살면서도 그 고통에 빠져 살지 않으려고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애써 들인 공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긍극 목적 해탈

내 마음은 그대로 고집하면서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 편한대로 바뀌길 바란다면 헛되이 애만 쓰게 될 뿐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마음을 돌이키면 큰 변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피력입니다.

수행하는 바른 자세는 나의 고통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진정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이 풀어갈 주체임을 자각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만큼 받는 철저한 인과를 인식하는 것만이 자기의 근원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불법은 깨달음의 종교이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근원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진리는 부처님과 같이 특정인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래도 갖추고 있는 참 모습인 진리 그대로의 완전 실현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주체적 실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의 원력 또한 불법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법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한것이 없고 중생이라 해서 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부처님과 다르겠습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보시고 진리 자체가 되어 진리 그대로 사셨지만 중생은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진리인지 모른채 살고 진리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푸른 하늘 가운데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같은 허공 속에 있어도 부처님은 자재한 삶, 중생들은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불법을 행해서 깨달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너의 자성을 깨달아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의 청정을 깨달으면 천지만물이 나와 한몸이요, 미혹하면 중생세계입니다. 스스로 망념의 변화에 의하여 인간세계, 천상세계, 귀신세계, 물질세계가 일어나고 망념을 여의고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바로 생사를 해탈한 진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서 존재한다는 상의 상관의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깨달아 가는 지성의 종교인 만큼 자칫 불교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선입견을 버리고 잘 들여다 보면 매우 조리있고 자연스럽게 정돈된 종교입니다. 마치 잘 정리된 실타래와 같아서 첫걸음을 정확하게 딛으면 무리없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參禪卽念佛 참선이 곧 염불이요.
念佛卽參禪 염불이 곧 참선일세
本性無方便 본래 성품은 방편도 없는 것
昭性寂寂然가장 밝고도 고요하여라.

불교를 행하는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대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보다 알기 쉬운 불교, 보다 앞서가는 불교"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3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 종 사 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 전 개 설
	2학기	불 교 입 문	화 엄 사 상	밀 교 사 상	법 화 사 상	정 토 사 상
2학년	1학기	의 식 이 론	반 야 사 상	포교방법론	불 교 미 술	유 식 철 학
	2학기	의 식 실 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원전강독 Ⅱ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